# “불자대중과 소통하는 수륙재 공연 선보입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 수륙재 시연회**
**오는 9월 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팔순기념**
**제자 정오 스님 등 11명 시연 설행**
**작법무 중심 공연 형식으로 구성돼**
**스님의 시연 소식에 이미 좌석 매진**
**동주 스님 “내년 수륙재로 회향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사찰들의 불교의식을 전승하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불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수륙재 공연을 펼친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팔순을 기념해 ‘경제어산수륙재’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시연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팔순을 맞아 문현·화암·상연·정오·선각·선경·보천·지성·현준·성운·보정·하경 스님 등 제자 12명이 마련한 공연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국불교의례전승원장 정오 스님은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사리가 바로 범패다. 출가 이후 스님은 선원 정진 7년을 제외하고 56년을 오롯이 범패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셨다”면서 “후학으로서 스님의 원력이 담긴 경제어산수륙재를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어산수륙재 시연은 총 3막으로 이뤄진다. 첫 막은 부처님을 모시는 법회를 위해 신중을 모셔 도량을 결계하는 의식이 이뤄지며, 두 번째 막은 도량을 청소하며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의식이 시연된다. 바라와 나비무 등 부처님을 찬탄하는 화려한 불교의 작법무가 펼쳐질 예정이다. 세 번째 막은 불보살을 모시고 법회 열어 이를 회향하는 의식이 이뤄진다. 또한 불자들은 잘 볼 수 없는 순당(巡堂) 의식도 펼쳐질 예정이다.

정오 스님은 “공연장에 와서 의식을 보면 종교의식의 정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래는 10일 정도, 최소 하루 정도는 설행해야 하는 의식이지만, 이를 축약해 2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작법무 중심으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원사 주지 성오 스님은 “공연장이 약 700석 가량 된다. 무료로 펼치는 의식 시연이나, 좌석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입소문이 벌써 퍼져 좌석이 전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관심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연은 동주 원명 스님의 소리를 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스님은 내년에 설행될 수륙재를 마지막으로 회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동주 원명 스님은 “본래 수륙재는 공연 무대에 맞지 않다. 종교의식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연장에서의 시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공연장에서의 시연도 필요함을 제자들이 이야기해 이번 시연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부처님오신날 이후 단오까지 수륙재를 정통으로 봉행하려 한다. 이 수륙재 설행이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회향하고 내 수행을 하려고 한다. 내년 이후에는 후학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려 석탑 양식 특징 간직한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8월 13일 지정예고**
**“11세기 석탑 기법 · 양식 간직”**

고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8월 13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의 석탑이다.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으로 구성된 탑신부가 있다. 상륜부(석탑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뤄졌다.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靑石)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짝 모양)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사리를 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창작곡 58집 발표




찬불창작곡을 보급해 온 불교문화단체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 이하 풍경소리)가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 새로운 찬불창작곡을 수록한 58집 앨범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풍경소리 58집에는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치 풍경소리와 닮은 듯한 노래 ‘소나무’(이종만 작사·작곡)가 1번 트랙으로 김정자 작사·서근영 작곡의 ‘비천’이 2번 트랙으로 담겼다. 아이들의 눈부신 목소리로 부른 ‘나무는 나무는’(전병호 작사·이종만 작곡)과 ‘부처님 감사해요’(전병호 작사·정유탁 작곡), ‘봄날씨’(덕진 스님 작사·최미선 작곡)도 수록됐다.

풍경소리의 찬불창작곡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너와 나’(이종만 작사·작곡)를 새로이 편곡해 실었다. 신중일 기자

## 재미·감동 있는 불교영화 33편 만나보세요

**날마다좋은날,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9월 9~12일 동국대 중강당서**
**‘불교, 대중 속으로’ 주제 진행**
**개막작 ‘아프리카의 부처’ 선정**

초가을,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불교영화 33편이 대중을 찾는다.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집행위원장 최진수·정달영)가 올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동국대 본관 중강당(만해홀)에서 개최된다.

‘불교, 대중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심오한 불교 교리를 다루기보다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3개국 33편 영화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9월 9일 오후 7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아프리카의 부처:Buddha in Africa〉이다. 〈아프리카의 부처〉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아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 〈아프리카의 부처〉 한 장면.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화를 소개하는 ‘관객과의 만남’ 시간도 마련됐다. 9월 10일 오후 6시에는 종교인이 된 건달들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 〈목스박〉이, 9월 11일 같은 시간에는 사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상영될 예정이다.

국내외 불교 단편영화들도 관객을 찾는다. 9월 10~12일 오전 9시부터 상영되는 단편 컬렉션 Ⅰ·Ⅱ·Ⅲ에서는 국내외 불교 단편영화 중 엄선된 23편의 영화가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된다. 실제, 이번 영화제는 전세계 110개국에서 1730편의 단편영화가 지원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영작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막식은 9월 12일 오후 6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폐막작은 영화 〈컵〉으로도 유명한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루킹 포 어 레이디 윗팽스 앤 어 머스타쉬(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oustache)〉다. 해당 작품은 네팔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버려진 사원을 유럽식 카페로 개조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영화는 와이드 스크린과 우아한 구도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영화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구글폼을 작성하거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배너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없이 영화제에 방문하면 주최 측에서 현장 발권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예매 사항은 세계일화불교영화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 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아비달마 수행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분석하여, 유부의 수행도론은 5온에 대한 단계적 통찰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모를 조망하였다.
김경희 지음/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초기불교 수행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율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초기 인도불교 승가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흔드는 파격적인 연구서!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신국판/무선/40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